

여흥민씨

## 여흥 민씨의 유래

여흥(驪興) 민씨(閔氏)의 유래에 대해서는 두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중국 농서현(감숙성 난산도)에서 배출된 성씨라고 보는 것인데 공자(孔子)의 10제자 중 한 사람인 민손(閔損) (자(字)는 건(騫) 노나라 현인(賢人))의 후손으로 상의봉어(尙衣奉御)를 역임한 민칭도(閔稱道)가 고려 중엽에 사신으로 왔다가 귀화한 것이 시초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기도 여주(驪州)에 있는 민굴(閔窟)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이나 두가지 견해 모두 명확히 확증할 수 있는 근거는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두가지 유래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민칭도가 중국에서 귀화하여 여흥에 정착하면서 우리나라 민씨의 시원(始原)이 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묘정비  
충남 감진군 송악면 서포리

이에 덧붙여 일생을 독립운동에 전념하면서 중국과 소련(蘇聯)을 2,3차례 도보로 왕복했던 민충식(閔忠植)의 회고담에 의하면 그는 중국에서 수백여호씩 거주하는 민씨촌(閔氏村)을 자주 목격했다고 한다. 한번은 어느 민씨촌을 방문했는데 그곳 사람들이 크게 반기면서 말하기를 “한국 민씨는 중국 민씨의 후예”라고 하며 그 이유를 “중국 문헌에 조선(朝鮮) 고려조(高麗朝)에 중국 조정의 민씨 한 사람이 고려에 사신으로 갔다는 기록만 있고 돌아왔다는 기록은 없으니 조선의 민씨는 그 사신의 후손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말은 민씨가 중국에서 귀화해 온 것이라는 귀화설(歸化說)을 뒷받침하는 자료라 할 것이다. 따라서 여흥 민씨의 시조는 고려에 귀화한 민칭도라 할 수 있지만 그의 상계(上系)는 전해지지 않고 또 본관을 여흥으로 하게 된 연유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여흥 민씨 시조, 민칭도

여흥 민씨의 관향인 여흥은 경기도 남동단에 위치한 여주의 옛 지명(地名)으로 본래 고구려(高句麗)의 골내군현(骨內斤縣)이었다가 신라(新羅) 경덕왕(景德王)이 황효현(黃曉縣)으로 개칭하여 기천군(沂川郡)에 귀속시켰다. 이후 고려초에 황려현(黃驪縣)으로 변경하였으며 현종 9년(1018) 원주에 속했다가 고종(高宗)조에 영의(永義)로 바뀌었다. 그리고 충렬왕 31년(1305) 여흥군(驪

興郡)으로 승격된 후 조선시대에 접어들자 태종(太宗)조에 음죽현(陰竹縣)의 북부를 편입하여 여흥부(驪興府)로 승격되면서 관할이 충청도에서 경기도로 이관되었다. 예종(睿宗)조에는 천녕현(川寧縣)을 병합하여 여주목(驪州牧)으로 변경하였고 연산군 8년(1501) 충주부(忠州府)의 관할에 두었다가 고종 33년(1895) 충주부 여주군이 되었으며 1914년 경기도 여주군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민씨의 본관(本貫)은 여흥을 비롯해서 황려(黃驪), 영주(榮州), 여주(驪州), 대전(大田), 해남(海南) 등 32본(本)이 있는 것으로 문헌에 전해지지만 황려는 여흥의 옛 지명이고 영주 민씨는 여흥 민씨의 지파(支派)로서 근세에 와서 여흥으로 통합되었다. 그러므로 모두가 여흥 민씨의 세거지명(世居地名)으로 여흥 민씨와 같은 혈족이기에 본관은 여흥 단본(單本)이다.

민씨의 본관은 여흥 단본이다.

## 가문을 빛낸 인물들

고려 말기부터 명문(名門)의 지위를 굳혀온 여흥 민씨는 한말의 세도가문(勢道家門)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지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3차에 걸쳐 가문의 위세를 떨쳤다. 첫번째는 고려 말엽에서 조선초에 이르는 기간이고 두번째는 조선 숙종(肅宗)조부터 영조(英祖)조까지, 세번째는 한말 고종조이다.

먼저 첫번째 시기로서, 시조의 증손 민영모(閔令謨)가 고려 인종조에 문과에 급제하여 이부원외랑(吏部員外郎)을 지내고 명종이 즉위하자 왕의 총애를 받으며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를 거쳐 태자 태사(太師)를 역임하면서 융성기를 맞았다. 이후 그의 두 아들 민식(閔澁)은 신종(神宗)조에 형부상서를 역임했고 민공규(閔公珪)는 판병부사(判兵部事)를 거쳐 태자소보(太子小保)에 올랐는데 이 두 형제는 가문의 양대 쌍벽을 이루면서 가세를 크게 일으켰다.



문경궁 민영모의 단소  
충북 음성군 금왕읍



## 민지

상서공(尙書公) 민식의 증손 민지(閔漬)는 원종(元宗)조에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고 충렬왕과 충선왕조에 걸쳐 원(元)나라와의 대외관계를 원만히 처리하여 공을 세우면서 원나라로부터 한림직학사(翰林直學士)와, 조열대부(朝列大夫)의 벼슬을 받았다. 또한 두차례나 실패한 일본원정을 원나라가 다시 시도하려고 하면서 고려에 전함(戰艦)의 건조를 명하자 왕을 수행하여 원나라에 가서 전함의 건조를 중지케 했다. 그는 첨의정승(僉議政丞)에 이르러 벼슬에서 물러났으나 충숙왕 8년(1321) 여흥군(驪興君)에 봉해졌다. 한편 그는 문장도 탁월하여 <세대편년절요>(世代編年節要)와 <본국편년강목>(本國編年綱目)을 저술했으나 모두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그의 아들 민상정(閔祥正)은 강직한 성품으로 매사에 청렴하고 공평하여 이름이 높았고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와 찬성사(贊成事)를 역임했다. 민식의 6세손 민안부(閔安富)는 고려말 예의판서(禮儀判書)를 역임했으나 조선개국에 반대해 두문동에 은거하며 망국의 한을 달랐다.

## 세대편년절요

## 본국편년강목

## 민여익

그러나 민상정의 손자 민여익(閔汝翼)은 이성계(李成桂)를 도와 조선 창업에 공을 세우고 개국3등공신(開國三等功臣)에 올랐으며 태종조에 공조판서와 관한성부사(判漢城府事)를 역임했으며 세종조에는 호조판서로 여천부원군(驪川府院君)에 책봉되면서 조선초에 크게 명성을 떨쳤다. 여흥군 민지의 증손 민안인(閔安仁)은 공민왕조에 삼사우윤(三司右尹)을 지냈으며 조선개국 후에도 왕명을 받들어 악기(樂器)를 정리하고 제도를 바로잡아 대례(大禮)를 완성했다.

## 민종유

민종유(閔宗儒)는 충렬왕조에 삼사우윤을 거쳐 밀직부사를 역임했고 충혜왕조에 대제학과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를 역임했으며 전고(典故)에 밝아 명성을 떨쳤다. 충정왕을 수행하여 원나라에 다녀온 공으로 공신에 올랐으며 첨의참리(僉議參理)를 역임한 민사평(閔思平)도 시서(詩書)를 즐기고 학문에 뛰어나 당대의 석학 이제현(李齊賢), 정자후(鄭子厚) 등과 함께 명망이 높았다.

여평군(驪平君) 민적의 손자 민제(閔齊)와 민개(閔開) 형제는 조선 초기 여흥 민씨의 가세를 크게 일으켰는데 민제는 공민왕조에 19歳の 나이로 문과에 급제했고 창왕조에 예문관 제학(藝

文館 提學)과 예조판서를 거쳐 한양부윤(漢陽府尹)에 이르렀고 조선 태조조에 정당문학(政堂文學)이 되어 여흥백(驪興伯)에 봉해졌다. 그는 특히 국구(國舅)로 잡신(雜神)을 섬기는 음사(淫祠)를 싫어하여 그가 거처하는 곳 주변에는 몽둥이를 든 하인과 개가 무당과 중을 쫓는 그림이 걸려 있었다고 한다. 또한 민제는 사치와 오만을 배격하고 건강증진에 힘써 환자들에게 약을 주는 방(榜)을 전국에 보내 보건계몽 운동에 앞장섰다. 이와 같은 그의 일관된 생각으로 그의 네아들의 이름을 무구(無咎.참지승추부사 역임, 여강군), 무질(無疾.우군도총재 역임,여성군),무휼(無恤.한성윤 역임), 무회(無悔.예문관 제학 역임,여산군) 등으로 지었다.

민개는 공양왕조에 한성부윤, 대사헌을 역임했고 정도전(鄭道傳) 일파가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려는 것을 반대했다가 그들에게 피살되기 직전에 이방원(李芳遠)의 저지로 위기를 넘기기도 했다. 그의 둘째 아들 민불탐(민불貪)은 세종조에 문과에 급제하여 경상도 감사, 이조참관을 역임했으며 청백리(清白吏)에 올라 명성을 떨쳤다. 그러나 민개의 손자 민신(閔伸)은 수양대군의 왕위찬탈 음모에 완강히 거부하였는데 이로 인해 계유정난(癸酉靖難) 당시 현릉(顯陵)에 비(碑)를 세우는 공사를 감독하고 있다가 수양대군이 보낸 자객(刺客), 삼군진무(三軍鎭撫) 서조(徐遭)에게 다섯 아들과 함께 무참히 살해당했다.

민개

중종조에 별시문과(別試文科)에 급제하여 호당(湖堂)에 뽑혀 사가독서(賜假讀書)를 역임했던 민제인(閔齊仁)은 이후 인종조에 위사2등공신(衛社二等功臣)에 올랐다. 그리고 명종이 어린 아이로 왕위에 오르자 수렴첨정(垂簾聽政)을 하던 문정왕후(文定王后)가 밀지를 내려 인종의 장인 윤임(尹任)과 류인숙(柳仁淑), 류관(柳灌) 등을 제거하려 했을 때 그는 윤임 일파의 처벌은 마땅하나 민심을 동요시키지 말 것을 건의했다.

민제인

이후 민기(閔箕)는 명종, 선조조의 명신으로 우의정을 역임했으며 여흥 민씨의 중흥을 주도하였다. 그는 김안국의 문인으로 중종 34년(1539)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 저작(弘文館 著作)이 되고 군기시첨정(軍器寺僉正)으로 춘추관 편수관(春秋館 編修

민기

官)을 겸직하였고 <중종실록>(中宗實錄)의 편찬에도 참여하였다. 이어 군기시정(軍器寺正)을 거쳐 경상도 암행어사, 동부승지(同副承旨), 공조참의, 호조참의를 거쳐 명종 6년(1551) 대사성(太司成)에 올랐다. 이듬해 동지사(冬至使)로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이후 대사간, 대사헌, 대사성 등 여러 관직을 두루 역임한 뒤 선조 원년(1568) 우의정에 올랐다.

민순

민광훈

화담(花潭) 서경덕(徐敬德)의 문하에서 역리(易理)를 공부했던 민순(閔純)은 주정설(主靜說)을 기반으로 생활했으며 민광훈(閔光勳)은 인조 6년(1628) 알성문과(謁聖文科)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정언(正言)과 지평(持平)을 지내고 홍문관 교리(校理)와 사간(司諫)을 역임한 후 효종조에 승지, 강원도 관찰사를 지냈다. 그의 아들 민정중(閔鼎重)은 송시열(宋時烈)의 문하에서 학문을 닦아 인조조에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했으며 이후 주요 관직을 두루 역임한 후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를 역임했으나 숙종의 즉위와 함께 남인(南人)의 득세로 장흥부(長興府)에 유배되었다가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으로 풀려나와 좌의정에 올랐다. 민광훈의 손자 민진장(閔鎭長)은 남달리 효성이 지극하여 정문(旌門)이 내려졌으며 형조와 호조판서를 거쳐 우의정에 이르렀다. 또한 민광훈과 그의 아들 민정중, 손자 민진장은 '삼세문장'(三世文章)으로도 크게 명성을 떨쳤다.

민광훈, 민정중, 민진장의 '삼세문장'

민진원

인현왕후의 동생인 민진원(閔鎭遠)은 숙종 17년(1691) 문과에 급제했으나 왕후의 유폐로 등용되지 못하다가 인현왕후가 복위되자 검열(檢閱)에 올랐고 이후 병조정랑과 사복시정(司僕寺正)을 거쳐 전라도 관찰사에 임명되었다. 이때 그는 범람하는 서원으로 인해 지방관청의 재정소모가 심하고 당쟁의 온상이 된다고 하는 상소를 올려 서원건립을 줄이게 했으며 경종조에는 공조판서로 실록청의 총재관이 되어 <숙종실록>(肅宗實錄)의 편찬에 참여했고 경종 4년(1724) 우의정에 이어 좌의정에 올랐다. 영조조에는 판중추부사가 되어 <가족제복론>(加足帝腹論)을 찬진했으며 이광좌(李光佐)가 이끄는 소론에 맞서 노론의 영수로서 활약하였고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간 후 봉조하(奉朝賀)가 되었으며 문장과 글씨로도 이름을 떨쳤다.



영의정에 추증되고 여성부원군(驪城府院君)에 추봉된 민치록(閔致祿)의 딸이자 조선 고종의 비(妃)인 명성왕후(明成王后)에 서부터 조선말 여흥 민씨의 세도정치가 시작되었다. 명성왕후는 16歳の 나이로 왕비에 간택된 후 대원군(大院君)과 대립하면서 한말 격동기속에 국내외의 정치적 반항을 감내하였다. 민승호(閔升鎬) 역시 명성왕후를 도와 국정 전반에 참여하면서 여흥 민씨의 가세를 크게 일으켰고 민겸호(閔謙鎬)는 고종조에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를 역임한 후 정치제도의 개혁을 주도하였으며 선혜청 당상관(宣惠廳 堂上官)에 올라 영의정에 오른 민규호(閔奎鎬)와 함께 가문의 융성을 가져왔다.

명성황후

민겸호의 아들 민영환(閔泳煥)은 고종 14년(1877) 문과에 급제하였고 동부승지와 대사성을 지낸 후 예조, 형조, 병조판서를 거쳐 한성판윤 등 두루 요직을 역임하였으나 광무 9년(1905) 을사조약(乙巳條約)이 체결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결하였다. 이외에도 민영익(閔泳翊)은 친일정권이 수립되자 상해로 망명하였으며 민종식(閔宗植)은 홍주에서 의병을 일으켜 항일운동을 주도했다. 민강은 상해 임시정부와의 연락을 담당했고 의병장 민공호(閔肯鎬)는 강원, 충청, 경상도를 누비며 일본군과 격전을 벌였다. 뿐만 아니라 민치도(閔致道)는 대동단(大同團)에 가입한 후 사재를 털어 임시정부의 군자금을 조달했으며 민형식(閔衡植)은新民회(新民會)의 회원으로 민족운동에 참여했고 대한민국 청년단 재무부장 민제호(閔濟鎬), 중국 정부와 협의하여 무장경위대를 조직하고 항일투쟁을 벌였던 민필호(閔弼鎬) 등은 일제에 굴복하지 않고 절의를 지키며 겨레와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헌신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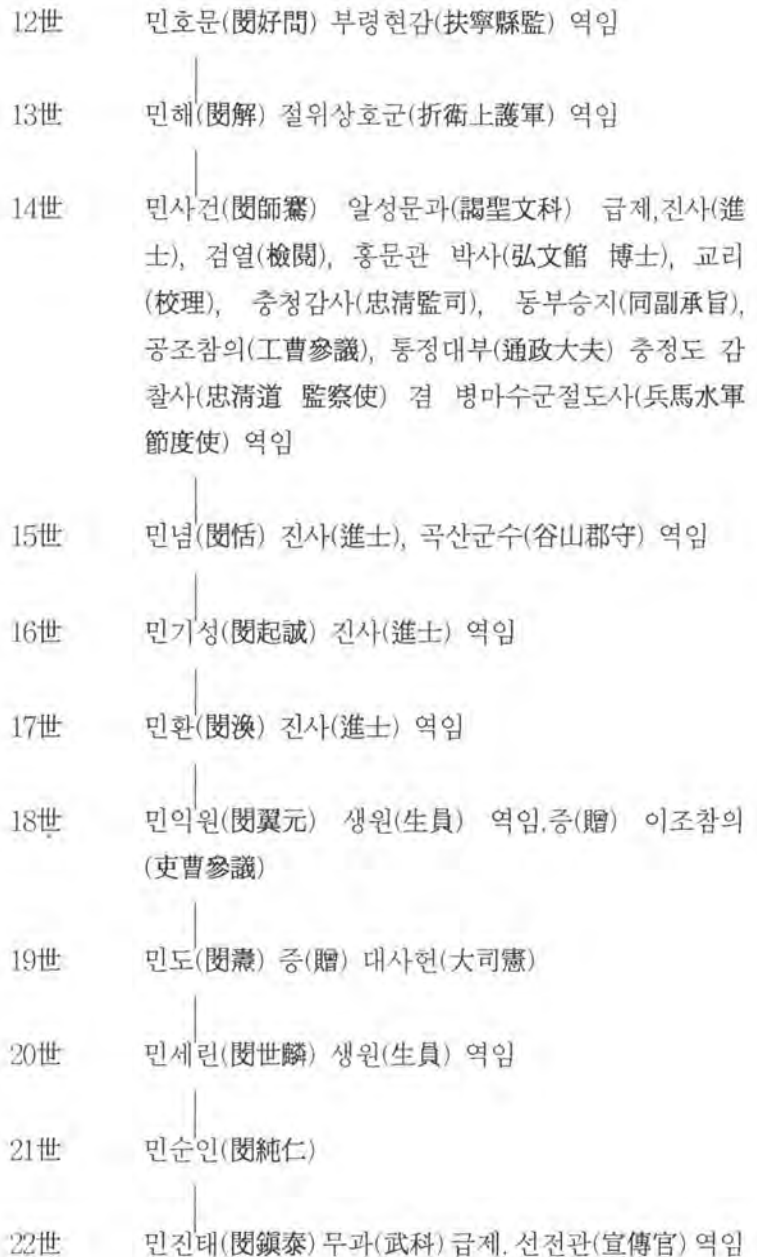
민영환

민치도

## 광명에서의 여흥 민씨

여흥 민씨가 광명시에 정착한 것은 13세 민해(閔解)부터이고

그 기간은 약 반세기전으로 실로 오랜 기간을 광명시에 뿌리내리고 계대(系代)를 이어왔다.그 기간동안 14세 민사건(閔師騫)을 파조(派祖)로 하여 감사공파(監司公派)로 분파되어 후손들이 번영했는데 그 가계(家系)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를 주도했던 명문 여흥 민씨는 광명시에서도 가문의 번성을 누렸다. 근세에는 민병욱이 시흥농민봉기 때에 성우경과 함께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독립운동을 주도했다. 그리고 민진식은 광명시 및 시흥시에서 오랜 공직생활을 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큰 활력소가 되기도 했다. 제보자는 민해식이다

## 여흥 민씨의 설화 및 전설

명종과 선조조의 명신으로 여흥 민씨의 중흥을 가져온 인물인 민기(閔箕)는 다섯살의 나이로 천자문(千字文)을 배울 때 진(晉),

초(楚) 두 글자를 익힐 무렵 아버지에게 묻기를 “진나라와 초나라가 있기 전에는 이 글자의 뜻을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라고 하여 아버지를 당황하게 했다는 일화가 전한다.

이후 명종조에 좌의정 윤개(尹漑)가 독단적인 정치를 이끌어 조정의 신하들이 모두 그를 싫어하였다. 이때 민기는 윤개의 면전에서 “거만한 용(龍)이 후회함이 있다”라고 충고했으며 얼마후 윤개가 왕의 미움을 받아 “대신에 합당하지 않다”는 전교를 내렸을 때 민기는 “대신을 예로써 대우해야 하며 간(諫)하는 신하의 말을 받아들여 용납해야 합니다”라고 하며 본인 앞에서도 대담하게 충고하고 또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구제하는데 힘써 훌륭한 인격으로 칭송을 얻었다.

#### 민영환의 일화

여흥 민씨가 사랑하는 대표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인 민영환(閔泳煥)은 광무 9년(1905)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조병세(趙秉世)와 백관(百官)들을 인솔하여 궁궐에 나가 이를 반대하려 했으나 일본 헌병들의 개입으로 강제해산 당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자 그는 다시 종로 백목전도가(白木廳都家)에 모여 상소를 올릴 것을 의논했지만 이미 대세가 기울어짐을 보고 전동(典洞) 이완식(李完植)의 집에 가서 “아, 나라의 수치와 백성의 욕됨이 이에 이르렀으니…”로 시작된 유서 3통을 남기고 장렬하게 순절하였다.

그가 자결한 후 피문은 옷을 지하실에 간직하고 그 방을 봉했는데 이듬해 봄 그 자리에서 대(竹)가 솟아 올랐다. 이에 사람들은 그 대나무를 민영환의 충절을 말하는 ‘혈죽’(血竹)이라 불렀다고 한다.

광명에는 최머리마을과 뱀수마을 사이에 모세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곳에 여흥 민씨가 제일 처음 정착했다고 한다. 모세라는 마을 이름에 관련된 전설이 전해 지고 있다.

여흥 민씨는 대대로 손이 귀했는데 마을에 연못 세 개를 파면 손이 흥한다는 말을 듣고 연못 세 개를 파서 “못이 세 개 있다”는 뜻으로 모세라 이름하였다는 전설이 전한다. 이 전설은 농경

사회에서 연못이 생산력과 직결된다는 것과 연관지어보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한편 지금의 충현탑 일대는 여흥 민씨의 선산이 있던 곳인데 그 선영 중에는 감사공파의 파조 사건 공의 네 째 며느리인 하동 정씨의 묘도 있었다고 한다.

하동 정씨는 남편을 따라 황해도 해주에서 분가해 살다 모세로 다니러 왔다가 그만 병환을 얻어 이 곳에서 돌아가시고 말았다. 이에 황해도 해주를 그리워하며 묘를 써서 그 묘는 다른 묘소와 달리 북향묘였다고 한다.

제보자 민해식